

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(3월 3~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 환율

①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

구 분	내 용	비 고
환율	1 USD = 3.75 SAR (Peg system)	(2025.3.24.) Saudi Central Bank (SAMA)
기준금리	5.00 %	(2024.12.18.) Saudi Central Bank (SAMA)

-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리얄화의 가치가 달러화 가치에 연동되는 달러화 페그제(peg system)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조정으로 리얄화의 통화가치 유지
- 사우디 중앙은행(Saudi Central Bank: SAMA)은 2024.12.18.일자로 기준 금리로 사용되는 Repo Rate를 0.25% 인하 발표함

② 국제유가 동향

구 분	유가	변동 (전일대비)	비 고	
유 가	브렌트유	71.88	- 0.28	USD/bbl
	WTI	68.04	- 0.24	



< 자료: Oilprice.com (2025.3.24.) >

(단위: USD\$)

구분	3.10	3.11	3.12	3.13	3.14	3.17	3.18	3.19	3.20	3.21
Brent	69.28	69.56	70.95	69.88	70.58	71.07	70.56	70.78	71.47	72.16
WTI	66.03	66.25	67.68	66.55	67.18	67.58	66.90	67.16	68.07	68.28

※ 기준: Brent (25.4월 계약분), WTI (25.4월 선적분)

3 시장 동향

○ S&P, 주재국 신용등급 A+로 상향 조정 (Saudi Gazette 3.15)

- S&P Global Ratings은 비전 2030 아래 지속적인 사회경제 및 자본 시장의 개혁 추진 등을 반영해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‘A+’로 상향 조정함
- 이번 조정은 비석유 부문의 강한 성장과 견고한 투자 모멘텀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며, 사우디의 제도적 체계 강화, 거버넌스 개선 및 경제 다각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됨
- 또한, 인프라 투자 재조정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재정 회복력을 강화하면서,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글로벌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언급함
- 석유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함
- S&P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실질 GDP가 연평균 4%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관광, 제조업, 물류,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비석유 부문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함
- PIF는 국내 프로젝트에 연간 400억불을 투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, 관광업의 GDP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의 고용 기회 확대와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음
-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, 사우디의 국가 재무 건전성은 여전히 견고하며 2028년까지 정부 순자산이 GDP의 약 32%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
- 아울러, 사우디는 순 외부 채권국 지위를 유지하며 경제 안정성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됨

- **환경 프로젝트 투자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 런칭** (Saudi Gazette 3.16)
 - 수자원환경부 장관이자 환경기금(Environment Fund)의 이사회 의장인 Abdulrahman Al-Fadley는 3.16일 개최된 환경기금과 중소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(Kafalah) 간의 협약 체결식에 참석함
 - 이번 협약은 사우디 내 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며, 중소기업(SME) 대상 신용보증 제공을 통해 환경 부문의 투자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보조금 프로그램 플랫폼 출범과도 연계됨
 - 동 협약을 통해 경제적 실현가능한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시 요구되는 담보 제공의 어려움 해소 지원이 목표이며, Kafalah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임
 - 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가 환경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며, 환경 보호 프로젝트 활성화, 환경 이니셔티브 자금 지원, 환경 및 기상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승인된 금융기관과 협력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예정임
 - 또한, 목표 그룹을 지원하고 개발하면서 이들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율을 증가시키고,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율을 확대할 계획임
 - 이번 조치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, 환경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며, 혁신적인 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, 환경 부문에서의 새로운 성장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- **2월 인플레이션을 2%로 안정 유지** (Saudi Gazette 3.17)
 - 금년 2월 사우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전년과 동일한 2%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으며,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임
 -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(GASTAT)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2월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동월 대비 2%를 기록했으며, 이는 주택, 수도, 전기, 가스 및 연료 가격이 7.1%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특히

주택임대료가 8.5%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

○ 2024년도 Saudi Electricity Company (SEC) 순이익 발표^(MEED 3.21)

- 지난해 Saudi Electricity Company (SEC)의 순이익이 33% 감소한 69억 리얄(약 18억불)을 기록함
-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금융 및 운영 비용 증가와 아랍코에 대한 57억 리얄 상당의 비용 정산 등임
- SEC는 2024.2월 연료량, 가격, 취급 비용 및 전력 요금 관련 과거와 차이로 인해 정부와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한 바 있음
- 비교 기간에서 비정기 항목을 제외하면, 정상화된 순이익은 121억 리얄로, 2023년 대비 8.9% 증가했고 매출은 2023년 753억 리얄에서 지난해 887억 리얄로 17.7% 증가하였음
-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규제 가중 평균 자본 비용(WACC)의 변화와 규제 자산 기반의 확대, 전력 수요 및 가입자 수 증가, 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과 같은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신규 수익 등이 기여함
- SEC는 연간 재무 보고서에서 조정된 이자, 세금, 감가상각 차감전 이익(EBITDA)이 2023년 339억 리얄에서 지난해 377억 리얄로 11.2% 증가했다고 밝힘
- 2024년 SEC의 운영 활동에서 발생한 회사의 현금흐름은 운전 자본의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83억 리얄로 증가했다고 밝힘
- 또한, 전력 인프라 확장, 스마트 그리드 개선, 발전 효율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면서 2024년 자본 지출은 44% 급증하여 사상 최고치인 600억 리얄에 도달함
- 한편, SEC는 여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2024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, Moody's는 A1에서 A3으로 상향했고 Fitch Ratings는 A에서 A+로 상향하여 현재 국가 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됨
- SEC는 향후 성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572억 리얄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(수쿠크 발행 109억 리얄, 미국 달러화 신디케이션 및 대출 463억 리얄)했으며, 2024.1월에 국내 수쿠크 45억불, 국제 수쿠크 8억불, 2024.4월에 국제 수쿠크 15억불을 상환하였음

4 건설시장 동향

- 美 대통령, 리야드 방문 시 원전 프로젝트 논의 가능성^(MEED 3.10)
 - MEED는 향후 6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야드를 방문할 예정이며,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
 - 소식통에 따르면, 주요 의제는 러시아, 우크라이나, 중동의 평화가 될 것이지만, 원전 산업과 같은 에너지 협력도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
 -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두번째 임기의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, 2017년 첫 사우디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약 3,500억 불 규모의 사우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
 - 한편, 이번 방문의 성사 여부는 미국 경제에 1조 불 이상의 사우디 투자를 유치하는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
 - 아직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가 공식 의제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하지만,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
 - 사우디는 2022년 Duwaiheen 지역에 위치할 첫 번째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의 입찰 절차를 재개하였지만, 이스라엘, 가자지구 등 중동 국가들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주요 계약 입찰 마감일이 수차례 연장되고 있음
 - 사우디 정부는 우라늄 농축 계획과 원전 프로젝트 추진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고,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
 - 2023.10.14일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스라엘을 독립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, 관계 정상화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 바 있음
 - 한편, 금년 1월 미국의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오랜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결됐으며, 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는 모두 사우디 원전 개발에 참여 의향을 전달했지만,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경쟁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려짐

○ 디리야 오페라 하우스 계약 임박^(MEED 3.10)

- MEED는 Diriyah Company가 추진하는 디리야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평가가 최종 단계에 도달해 3월 중에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함
- 동 프로젝트의 연면적은 46,000㎡으로 시설에는 2,000석 규모의 오페라 극장, 450석 규모의 다목적 극장 3개소, 파빌리온 및 리테일 시설 등 건설을 포함함
- 해당 시설은 디리야 게이트 프로젝트의 2단계에 포함되어 추진되며,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함
- 지난해 8월 MEED는 건축사들이 동 프로젝트의 설계 개발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, 노르웨이의 Snohetta가 건축 설계를 리딩하고 있음
- 또한 기타 참여사로 영국의 Plan A Consultants, Arup, Buro Hapold, Tricon, Spec Studio, Fractal Landscape, 미국의 JLL, 독일의 Schlaich Bergermann Partner, Transsolar, UAE의 Penguin Cube, Evergreen Adcon, 로컬의 Syn Architects, Saudi Diyar, Maha Mullah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

○ 리야드 메트로 7호선 입찰마감일 6월로 연장^(MEED 3.11)

- RCRC (Royal Commission for Riyadh City)가 Design-Build로 추진하는 리야드 메트로 7호선*의 제안요청서(RFP) 마감일이 3.15일 예정이었으나 6.15일까지로 연장됨
- * 쿼디야 엔터테인먼트 시티, 킹살만파크, 디리야 게이트, 뉴무라바, 킹칼리드 국제공항 연결 노선
- 3월 초 MEED는 동 프로젝트에 참여 예정이던 컨소시엄의 일부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변경된 것을 보도한 바 있으며, 현재 입찰 참여를 검토중인 컨소시엄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짐
 - Alstom (프랑스), FCC (스페인), Freysinnet Contracting (로컬), WeBuild (이탈리아), Nesma (로컬)
 - Siemens (독일), 삼성물산, Alayuni (로컬)
 - Hitachi Rail (일본), OHLA (스페인), Almabani (로컬), Albawani (로컬)
 - CRRC (중국), Mapa (튀르키예), Limak (튀르키예)

- 한편, Alstom이 리딩하는 컨소시엄의 설계 컨설턴트는 Typsa, Ayesa, Aecom이고, Siemens가 리딩하는 컨소시엄의 설계 컨설턴트는 Idom, **도화**, Pini이며, Hitachi Rail이 리딩하는 컨소시엄의 설계 컨설턴트는 Sener임

○ RSG, 누만 아일랜드 개발 프로젝트 토목공사 입찰 마감 예정^(MEED 3.12)

- Red Sea Global (RSG)가 아말라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인 누만(Numan) 아일랜드 개발 해양 및 대규모 토목공사의 입찰을 4.15일 마감할 예정
- 동 프로젝트는 누만 아일랜드에서 추진되는 두번째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 2월 입찰 공고했으며, 당초 입찰마감은 3.1일이었음
- 한편, 입찰에 초청된 기업은 다음과 같이 알려짐
 - Archirodon (네덜란드)
 - China Harbour (중국)
 - Rawabi Specialised Contracting (로컬)
 - Besix (벨기에)
 - AlSaad General Contracting (로컬)
 - Ammico Contracting (로컬)
 - Hasan Al-Harbi Corporation (로컬)

○ 디리야, 신규 지구 조성 계획 발표^(MEED 3.12)

- Diriyah Company는 디리야 프로젝트 내 뉴 미디어 및 이노베이션 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함
- 동 프로젝트는 25만 m² 이상의 사무공간, 1.5만 m²가 넘는 상업공간, 약 450개 주거유닛을 포함하며, 중동 최초 진출사례가 될 Luxury 1이라는 325개 객실의 호텔과 다목적 2만석 규모의 Diriyah Arena 인근에 조성될 예정
- 공식 성명에 따르면, 동 지구는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,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, 그리고 협업 생태계를 원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며,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어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뛰어난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함

○ 네옴, 해안 경비대 주거 빌리지 3월말 입찰 마감^(MEED 3.13)

- 네옴은 아카바만 해안도로 북쪽의 Haql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

해안 경비대 주거 빌리지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마감일을 3.26일로 공고함

- 동 프로젝트는 1km² 면적에 걸쳐 Design-Build로 개발 추진되며, 주거동, 행정동, 군 및 경찰 시설, 모스크, 쇼핑센터, 스포츠시설, 의료 클리닉, 학교, 민방위 시설, 창고, 폐기물관리 시설 및 관련 인프라가 포함됨
- 동 프로젝트는 2단계로 개발될 예정으로 1단계는 418,500m² 면적을 차지하고, 공사 기간은 15개월임

○ **킹살만 국제공항, 딜리버리 파트너사 선정**^(MEED 3.13)

- KSIADC (King Salman International Airport Development Company)는 킹살만 국제공항의 딜리버리 파트너로 미국의 Bechtel과 미국의 Parsons를 선정함
- Bechtel은 활주로, 유도로, 항공 교통 관제탑, 연료저장소, 소방시설 등을 포함하는 에어사이드 인프라를 담당하고, Parsons는 유틸리티와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인 도로 및 유틸리티를 담당 예정
- 딜리버리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발주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, 프로젝트 관리, 설계 관리, 비용 컨설팅 및 조달 자문도 포함됨
- 한편,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딜리버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은데, 캐나다의 AtkinsRealis, 미국의 Jacobs, Parsons는 네옴의 더 라인 프로젝트의 딜리버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

○ **SAN VI Low-Carbon Hydrogen Complex 프로젝트 동향**^(MEED 3.13)

- 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(Sabic)은 Jubail에 위치한 계열사 Sabic Agri-Nutrients Company의 기존 시설에서 통합 블루 암모니아 및 요소 생산시설 프로젝트의 입찰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임
- 약 20억~3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동 프로젝트는 San VI complex로 알려져 있으며, Sabic의 Horizon-I 저탄소 수소(LCH)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동부 주베일 산업도시에 위치한 Sabic Agri-Nutrients 시설에서 추진될 계획임
- San VI Complex는 연간 120만 톤의 블루 암모니아와 연간 110만 톤의 요소 및 특수 Agri-nutrients를 생산 예정임
- MEED는 작년 3월 동 프로젝트 입찰이 마감됐으며, 인도의 L&T, 일본의 JGC, 삼성E&A가 참여한 것으로 보도함.

- 현재까지 진행된 입찰 과정 및 여러 차례 협상 결과로는 삼성E&A가 EPC 수주 우선순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, 발주처가 아직 입찰 참여사들과 협상을 진행중이므로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음

○ 아람코, Sasref 확장 프로젝트 EPC 2분기 입찰 예상^(MEED 3.14)

- 아람코는 Sasref (Saudi Aramco Jubail Refinery Company) 확장 프로젝트의 SoI (Solicitation Of Interest)를 2분기 내 공고할 전망
- 이번 프로젝트는 아람코의 1천억불 규모 LTC (Liquids-to-Chemicals)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주베일 산업도시의 Sasref 정유 단지를 통합 정유 및 석유화학 단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이를 위해 Mixed-Feed cracker가 추가될 예정이며, Sasref 정유소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원료를 활용하는 Ethane cracker 건설도 포함됨
- 삼성E&A는 지난해 3월 아람코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바탕으로 동 프로젝트에 대한 pre-FEED와 FEED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
- MEED는 pre-FEED 계약기간이 18개월로 예상되며, 아람코가 2분기 내 EPC 입찰에 대한 SoI 프로세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
- 지난해 11월 아람코는 베이징에서 중국 Rongsheng Petrochemical Company와 동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프로젝트가 pre-feed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대규모 스티م 크래커 건설과 기존 Sasref 단지에 관련 다운스트림 파생 제품을 통합해 고품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

○ 알울라 트램 인프라 공사 입찰 평가중^(MEED 3.13)

- Royal Commission for Al-Ula (RCU)가 추진하는 알울라 트램 인프라 건설 계약에 대한 수정입찰 제출을 참여사들에게 요청함
- 동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에 RFP를 발행하여 11.10일에 상업입찰을 마감한 바 있음
- 트램 프로젝트의 1단계는 22.4km 연장 노선에 17개 정류장과 트램 20대를 운행할 예정이며, 노선은 알울라 국제공항과 주요 역사 유적지 5개소를 연결해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공사범위는 차량기지, 선로, 테크니컬 빌딩, 역사, 기타 관련 인프라의

설계 및 건설을 포함함

- RCU는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Alstom이 트램 차량과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라 발표했으며, 컨설턴트는 프랑스의 Systra가 임명됨
- 2021.4월, RCU는 알울라 지역 개발을 위해 150억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, 트램과 재생 에너지 발전 등 인프라 개발에 약 32억불을 배정함

○ **두산에너지빌리티, 15억불 규모 IPP 프로젝트 EPC 수주**^(MEED 3.14)

-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약 15억불 규모의 Rumah 1 및 Nairiyah 1 IPP에 대한 EPC 계약을 수주함
- 지난해 11월, MEED는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중국의 Sepco 3가 동 프로젝트의 EPC 계약을 수행할 것이라 보도했으며, 일본의 Mitsubishi Power가 발전소에 사용할 가스터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하였음
- 동 프로젝트는 SPPC가 국제입찰로 발주했으며, 한전, 사우디전력회사(SEC), 사우디 최대 민자발전사(ACWA Power)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디벨로퍼로 참여해 향후 25년간 운영할 예정임
- Rumah 1과 Nairiyah 1 IPP는 각각 1,800MW의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, 총 투자규모는 약 4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
○ **RCU, 알울라 개발 프로젝트 직원숙소 입찰 평가중**^(MEED 3.19)

- Royal Commission for Al-Ula (RCU)가 추진하는 23,739m² 규모의 알울라 개발 프로젝트 내 직원 숙소시설 프로젝트가 3.5일 최종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며, 구체적인 시기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됨

○ **네옴 더 라인 모듈 46 파일공사 완공 임박**^(MEED 3.20)

- 더 라인의 COO는 모듈 46의 파일공사가 완공 임박했으며, 모듈당 5,500개 이상의 파일이 최대 70m 깊이에 설치됐으며, 1단계 파일공사에만 약 350만m³ 이상의 콘크리트가 타설됐다고 언급함
- 또한, 파일공사에 이어 래프트 기초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MEED는 지난 2월 더 라인 프로젝트가 1단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며, 히든 마리나 구역 모듈의 래프트 기초공사에 대한

- 입찰 마감일을 3.24일로 연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
- 각 모듈의 래프트 공사는 3개 섹션(North Blade, Canyon, South Blade)로 나뉘어 추진되며, 래프트 공사 입찰은 모듈 45, 46, 47을 포함해 6개 구역으로 분할되었으며, 모듈 46의 서쪽 Lot 1과 동쪽 Lot 2 구역이 먼저 입찰 진행될 예정임
 - 한편, 래프트 기초 공사는 총 4.3만^m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될 전망
 - 최근 리야드에서 개최한 PIF Private Sector Forum 2025에서는 더 라인의 CDO가 현재 네옴은 프로젝트 1단계를 통해 3개 모듈의 2.5km 구간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중이며, 약 2,100만^m 면적 조성을 통해 20만명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
 - 지난 해 11월 네옴은 더 라인 1단계의 도시 계획 및 설계를 담당할 컨설팅 업체로 오스트리아의 DMAA (Delugan Meissl Associate Architects), 미국의 Gensler, 영국의 Mott MacDonald를 선정하였음